

들어가는 말

율법주의에 빠지면 삶의 행복 지수가 낮아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자존감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와 완벽주의는 결이 아주 비슷합니다. 율법주의적 완벽주의자들은 사랑 대신 율법, 관계 대신 규율을 중요시합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을 꾸짖고 벌하는 자책감으로 몰아부치며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즐기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한 마디로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본말

바울은 로마서 7: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중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정죄하는가 안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자주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중에 하나는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듯이 사랑이 목적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지만,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부인이란 내가 기꺼이 죄 된 이기적인 욕구들과 행동들을 벗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소멸시키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과 구별됩니다.

맺는말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남이 나를 정죄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안에서 정죄함에서 자유하고,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목상질문

1. 현재 나의 자존감을 1에서부터10까지 사이의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인가요?
2. 위의 점수를 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자존감이 무너졌거나 또는 건강해진 사건이나 전환점이 있으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수요일예배

- 장년 한어예배 7:00PM / 본 당
- 장년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 영아/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금요일모임

- Youth 7:00PM / 안디옥
- 영어청년 7:00PM / 안디옥
-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 한어부 월-토 6:00AM / 본 당
- 영어부 화-토 6:00AM / N-202

주일예배

- 장년 한어예배 1부 7:40AM / 본 당
- 장년 영어예배 2부 9:20AM / 본 당
- 장년 한어예배 3부 11:00AM / 본 당
- 사랑부 예배 (장애인) 1:20PM / 베들레헴
-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 유년부 예배 9:30AM / 나사렛
- 11:00AM / 베들레헴
- 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담임목사 송 경 원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데이케어 253.535.9435 | 기도원 253.847.2250

주일예배

- * 경배와찬양** 1부: 178장(새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56장(새 44장) “지난 이레 동안에”
3부: “내가 매일 기쁘게”, “예수 열방의 소망”,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 대표기도** 1부: 봉숙오글 전도사
3부: 송인상 집사
- 봉헌찬양** 1,3부: 177장(새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 공동체소식** 인도자
- * 성경 말씀** 로마서 8:1-2
- 설교제목** “주안에서의 자유 4”
- 말씀선포** 송경원 목사
- * 응답찬송** 1,3부: 404장(새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 축도**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수요성령예배		예배위원	
찬양과기도	수요찬양팀	이	1부: 봉숙오글 전도사
대표기도	민정위드맨 집사	번	3부: 송인상 집사
제목	“성령이 인도하시는 전도”	주	수요: 민정위드맨 집사
성경말씀	사도행전 8:26-35	다	1부: 김연정 집사
말씀선포	송경원 목사	음	3부: 안병철 집사
		주	수요: 영라버츠 집사

드러진 예물

공동체소식

-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안내팀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수요성령예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수요성령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디모데훈련 2단계와 하나님의 VIP 2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직회 결과: 지난 5/29에 열린 제직회에서 다음 5명(마이클 갤빈, 릭 데드릿지, 데니 윌리엄슨, 유성렬, 오금철)을 임시운영회 위원으로 세우기로 결정하고, 7/10(주일) 사무처리회에서 이를 승인받기로 결정했습니다.
- 청지기/돌봄지기 모임: 6/11(토) 오전 7:10
- 담임목사와 함께 하는 EM 코이노니아: 6/11(토) 오후 2시, 안디옥 영어부 성도님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회 종합시상식: 6/11(토) 오후 2시, 교회 분당
- 전도회 월례회: 6/12(주일) 3부 예배후. 전도회별로 모임을 갖기 바랍니다.
- 2022 VBS: 6/28(화)-7/2(토). 대상: 2018년 12월이전 출생한 어린이부터 현재 6학년
1) 등록: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회비 납부 되어야 등록 완료) \$60(6/1부터)
2) 봉사자 및 중보기도자 모집 : 로비에 사인업. (문의: 리아안 전도사)
※ VBS Training: 6/5(오늘) 오후 1시-5시. 안디옥
- 어린이부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Kids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간 뉴스레터와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Kids 앱으로 연결됩니다.
- 유년부/유치부 오전 9:30 예배를 섬겨줄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리아안 전도사)
- 2022년 하반기를 맞아 업데이트된 개인 및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도요청서에 작성하여 로비의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 사역자 청빙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역

- 담임목사: SBC 총회/미주남침례교 한인교회 총회 참석(6/12-16, LA)
- 24시간 기도 핫라인: 남궁곤 목사(253-753-8310), 봉숙오글 전도사(253-359-7869)
- 구성전, 데이케어 창문/창틀/카페트 교체 공사: 6/6(월)-11(토)
- 주정부 지침에 따라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 증상처럼 아픈 경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우동정

- 소 천: 故 문충현 성도(문창선 원로목사 아들) 6/2 소천,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故 Billy Wasson 성도 천국환송예배: 6/8(수) 11시. 마운틴뷰 장례식장 garden chapel
- 중 보: Conard Goering, Larry Gibbs, Floyd Richardson, Mack Horne, Rick Dollar, William Ellis, Eric Mose, Clarence Turner, William Dungey, Ken Adkins, 임숙갤빈, 인자킹, 정자얼프, 미숙벤드레스, 순천터너, 박정자, 박지영